

하늘길 열리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와이너리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19년 9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여행에 네 살배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했다. 어릴 땐 1년이 다르니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다음해에 가라고들 했다. 유모차를 밀고 끌고 다녀야 했지만 네 살 아이는 나파밸리의 햇살과 포도를 실컷 맛 보고, 어른들은 와인을 마음껏 즐겼다. 그리고는 불과 석 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늘길은 닫혔다. 모두들 깨달았다. 이런저런 때와 조건을 따지기 보단 떠나 수 있을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올해 언제든 팬데믹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면 무조건 바다 건너 첫 행선지는 와이너리다.

세계 와인전문가와 여행전문가 600명이 투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World's Best Vineyards)를 선정했다.

최고의 와이너리로 꼽힌 곳은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위치한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Zuccardi Valle de Uco)다. 무려 3년 연속이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

주카르디 발레 데 우코는 웅장한 석조 건물로 우코 밸리의 사막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곳의 목표는 완벽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루아를 가장 잘 표현 하는 것이다. 처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돌을 치워야 했지만 이 역시 와인과 와이너리에 그대로 표현됐다. 대표 품종인 말베크를 비롯해 카버네 소비뇽, 카버네 프랑, 템프라니요, 사도네이 등으로 만든 와인을 맛 볼 수 있다.

2위는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이다. 1858년에 설립됐으며, 최초의 리오하 와인이 병입된 곳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리오하 와인인 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황금색 철사 그물로 와인병을 감싸기 시작한 곳도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다.



마르케스 데 리스칼.

/worldsbestvineyards.com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호텔은 지하 와인 창고 위에 들어서 있다. 티타늄 지붕의 반짝이는 빛은 와인의 즐거움을, 핑크빛은 와인의 색을, 골드빛은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황금 그물을, 실버빛은 와인의 캡슐을 상징한다.

3위는 와인 종주국 프랑스다. 5대 1등급 와이너리 가운데 한 곳인 샤토 마고(Chateau Margaux)다. 메독의 베르사이유라고도 일컬어 지는 곳으로 부지면적만 265헥타르로 그 자체로 하나의 마을이다.

100년된 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길을 지나면 와인 레이블에 그려진 그림같은 성을 만나게 된다. 19세기에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루이 콩보가 설계한 건물이다.

4위는 와인 애호가들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루과이다. 바로 보데가 가르손(Bodega Garzon)이다. 사실 우루과이도 지리적으로 보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는 와이너리들과 위도가 같다.

보데가 가르손은 2016년에 문을 연 신생 와이너리지만 존재감은 가볍지 않다.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강암 토양이 그대로 녹아들며 이름을 날리고 있고, 2200헥타르에 달하는 와이너리 부지는 훼손되지 않은 자생림을 비롯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자랑한다.

칠레 몬테스 와이너리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안티노리 벨 키안티 클라시코, 아르헨티나 카테나 자파타, 칠레 비냐 빅, 스페인 곤잘레스 비야스 보데가스 티오 페페,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레에이션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잘못된 방향으로 칼 겨누는 한국인

며칠 전 친구가 증간소음 보복을 위해 우퍼 스피커를 샀다고 말했다. 친구의 윗집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를 자녀로 둔 가족이 사는데, 낮에는 애들이 뛰어다니고 밤에는 어른들이 발명치 소리를 내며 쿵쿵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경비실을 통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 좀 해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했다. 윗집은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하도 시끄럽다고 해서 매트 2개나 깔고 생활하는데 뭘 더 어쩌라는 것이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필자는 우퍼 스피커로 복수하기 전에 슬리퍼를 네 켤레 사다 쥐 보는 건 어떨겠냐고 넌지시 물었다. 친구는 “내가 왜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면서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우퍼 스피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복수 성공 후기글을 깔깔대고 읽는 게 요즘 삶의 낙이니 말리지 말라고 했다.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친구도, 내 집에서까지 숨죽이며 살아야 하냐고 길길이 날뛰는 윗집도 모두 이해가 돼 안타까웠다. 아파트 증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랫집, 두 집이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닌 시공사와 시행사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니던가. 시행사·시공사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이전보다 완화된 증간소음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뾰족 깊이 반성해야 한



호모 코레아니쿠스
진중권 지음/웅진지식하우스

다. 관련 법 제정에 손 놓고 직무유기 중인 국회도 증간소음으로 사투를 벌이는 국민들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이처럼 증간소음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칼을 겨누는. 왜일까. 진중권 작가가 한국인의 습속(습관이 된 풍속)을 탐구한 ‘호모 코레아니쿠스’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어느 작가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왜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가?” 물러서 묻는가. 거대한 것은 우리에게 분노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뭉개에 가로막힌 물이 제 갈 길을 찾아 우회하듯이, 분노의 흐름도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것을 피해 사소한 곳으로 흐름 수밖에”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기괴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302쪽, 1만3000원. /김현정 기자 hik1@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앤드루 갬블 지음/박형신 옮김/한울아카데미

복지국가는 전후 서구 선진국의 상징으로, 민주국가가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여겨졌다. 하지만 1930년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긴축 정책이 시행됐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970년대 이후 시장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는 논지를



폐기 시작한다. 책은 복지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160쪽, 2만2000원.

지식인의 아편

레옹 아롱 지음/변광배 옮김/세창출판사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이 있다. 책은 공산주의가 지식인의 종교이며 아편이라는 사실을 까발린다. 저자는 ▲정치적 신화 ▲역사에 대한 이상숭배 ▲지식인들의 소외를 주제로 공산주의라는 아편에 취한 프랑스 지식인들을 비판한다.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아직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느냐”고. 저자는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불행에 대한 학문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를 유혹한 지식인들의 철학”이라며 “또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내재적 철학이기는커녕 고유한 목적, 즉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의사 학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432쪽, 2만2000원.

세계에 눈뜨는 한 사람

김필통 지음/하모니북

한국에서는 집밖에서 밥을 한번 먹으려면 한 사람당 약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기근이 심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돈으로 한 명이 한 달간 살아갈 수 있다. 저울의 기술기를 읽는 감각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쓸 방법을 알려준다. 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전쟁과 분쟁, 기후위기와 환경과피 등 역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세계시민”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로 넓혀 연대를 시도하며 지구를 지키려 애쓴다. 세계에 눈뜨는 일은 한쪽의 풍요로움과 다른쪽의 빈곤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148쪽, 1만2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우부, 日외무상과 통화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 중국 지난해 6.6일당 1회 우주 로켓 발사 ‘세계 1위’ /사진 뉴시스

▲ 中 홍콩 책임자, 친중진영 장악 입법회에 “확고한 애국자 돼라”
▲ 일본 신문, 기시다 정권에 “한국과 대화 실마리 찾아라” 촉구



▲ 전세계 하루 확진 261만명 연일 최다치... 사망자 수는 감소세 /사진 뉴시스
▲ 세계동물보건기구 “최근 유행 시, 인간 전파 위험 커져”